

머라이언과 박물관: 싱가포르의 국가 만들기*

강희정(姜熺靜)**

요약

독립국가 싱가포르에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에 필수적인 일이었다. 위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공동체 사회를 형성한 시간이 짧았던 신생 싱가포르의 국민들 간에는 고유문화라고 할 만한 유대가 없었다. 그러므로 머라이언과 국가를 상징하는 시각문화, 다양한 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국가 싱가포르의 일체감을 확립하는 일이 중요했다. 리센룽과 전 수상 리완유는 국가 주도의 전시관 건립과 전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국가에서 주도하는 대대적인 관광 진흥사업 중 하나인 센토사의 종합 유흥단지에 세워진 대형 전망대 머라이언이나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 전시관은 좋은 예이다. 이들은 모두 싱가포르의 국가 정체성을 환기시키고, 다민족 통합국가로서의 지향점을 잘 보여주는 계획적인 시책의 일환이었다. 싱가포르의 국가 만들기는 '다민족으로 이뤄진 평등 사회의 구현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전시관의 홈페이지와 홍보물, 팸플렛 등은 이들이 싱가포르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관이라고 홍보하고, 국가의 성립 이전부터 싱가포르가 지나온 과거를 다양한 유물과 디오라마, 각종 전자 장치, 멀티미디어를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로써 이들 유형의 물건들이 현실화시켜주는 역사적 사건과 공동체적 경험담을 싱가포르 국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공유해 온 것처럼 만든다. 이 박물관들은 싱가포르의 기반이 근대 이전부터 형성되어온 문화에 있고, 이를 계승한 것이 현재의 싱가포르인 것처럼 꾸민 이미지 전시관이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 국민은 '국민'의 일원이자 싱가포르라는 사회구성체의 일원으로서 자기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게 된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에서 수행한 인문한국지원사업의 일환(NRF-2008-362-B00018)이며 2010년 서강대학교 신진교수연구과제 지원(201010010.01)을 받은 연구임.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교수

I. 서론

1965년 말레이반도 남단의 도시 싱가포르를 말레이시아와의 동반 관계를 끝내고 독립을 선언했다. 이전까지는 말레이시아와 협력하는 것이 싱가포르 인민행동당(PAP) 정책의 중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의 말레이시아(Malaysian Malaysia)’를 선언한 모나키스트 무슬림과는 더 이상 함께 움직이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들의 밀월은 2년 만에 끝났다. 싱가포르가 공화국으로 독립하기 위한 준비는 미흡했고, 독립은 갑작스럽게 이뤄졌기 때문에 당시 어느 정치가도 싱가포르가 독립하기에 적절한, 경쟁력을 갖춘 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Turnbull 1992). 그러나 싱가포르는 독립을 선언했고,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다민족국가로 출발했다. 다민족국가로 출발했다는 특성으로 인해 싱가포르는 모든 민족에게 기회를 주는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을 폈고, 이는 새로운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싱가포르가 다민족국가라는 점은 오랜 제국주의 시대를 거쳐 20세기 중엽에 독립을 성취하거나 계속 독립을 유지해온 동남아시아의 다른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다르다. 하지만 싱가포르가 처한 상황은 다른 나라와는 달랐다. 국가는 독립을 선언한다고 해서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은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지역을 점유하고, 경제, 사회, 문화적 기반을 공유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하면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이루는 공동체를 토대로 한다.¹⁾ 복잡한 식민지로서의 경험과 함께 식민지 이전의 국가나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발전시켰던 경험을

1) 여기서는 문화민족(kulturmaion)이라는 개념에서 언어, 문화, 관습 등 객관적 기준을 ‘네이션’의 기초로 강조한 마이네케, 비트람 등의 견해를 따른다. 물론 네이션을 근대화의 필연적인 산물로 강조하는 주권주의적 이론도 있다. 한스 콘, 헤이즈, 앤더슨이 여기 속하며 이들은 근대화 과정 속에서 대중 매체의 출현과 함께 ‘상상된 기반’이 만들어지고 이를 토대로 ‘네이션’이 성립되었다고 본다. 양자를 비판하면서 또한 아우르는 시각은 안쑤니 스미스에게서 발견된다. 그는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에스니(ethnie)가 ‘네이션’의 역사적 토대이며 이것이 근대에 부활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안쑤니 D. 스미스(1997) 참조.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역인 동남아시아도 이 점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이 공동체로서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싱가포르의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민족적, 문화적 공동체로 살아온 역사적 시간이 짧고 한 지역을 점유한 대규모의 집단 거주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신생국가 싱가포르의 ‘국가’로서의 기반은 다른 동남아시아의 국가보다 약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공동체로 지내온 경험은 역으로 오랜 분쟁과 종교적 갈등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싱가포르가 자유로울 수 있었던 지도 모른다.

이러한 모든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1819년, 래플스가 첫 발을 디딘 때로부터 200년이 채 되지 않는 역사밖에 갖지 못한 나라,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독립을 선언한 이후, 45년밖에 지나지 않은 나라가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에 못지않게 국가 통합에 성공한 것은 머라이언(Merlion)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가 시각상징물과 박물관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각각의 국가기관, 혹은 공공기관에서의 사회교육을 이용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머라이언의 제막식에 리관유 수상이 참여하여 연설한 것은 단적으로 그가 이러한 시각상징 기념물의 건립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지를 입증한다. 본고는 머라이언과 같은 시각이미지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했는지, 박물관과 전시관의 공간들은 싱가포르라는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 형성에 어떻게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전시를 구성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싱가포르가 국가라는 관념에서 지향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오랜 기간 통제된 국가이자 엘리트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고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국가의 정체성이 아니라 위로부터 이뤄진 관제 ‘국가 만들기(Nation Building)’의 전형적인 實例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싱가포르의 국가 만들기는 머라이언과 같은 시각 이미지와 모뉴먼트가 어떻게 국민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지, 박물관과 전시관의 공간들은 국가 정체성 형성에 어떻게 이바지하도록 전시를 구성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지향하는 점과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 정책의 방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로써 오랜 기간 통제된 국가이자 엘리트주의의 산물로서의 싱가포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II. 독립국가 싱가포르의 국가 만들기

전 수상 리관유는 1968년 5월 12일 싱가포르 호텔(Singapura Hotel)에서 열린 동남아경제위원회(Southeast Asia Business Committee)에서 “우리는 대다수 중국인, 인도인, 말레이인이고 (여전히) 싱가포르인이 아니다”라고 했다(Han 외 1998, 399). 그의 연설이 싱가포르의 독립 이후 3년 밖에 지나지 않았던 때의 것이었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싱가포르인이 아니고, 중국인이나 인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지적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그가 얼마나 정확하게 독립 싱가포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판단하고, 예견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준다. 스미스의 지적에 따르면 리 전수상이 생각하고 있었던 신생국가 싱가포르의 ‘네이션’ 개념은 모든 시민을 개별 구성원으로 하는 근대의 ‘대중적인 네이션’ 개념에 가깝다. ‘대중적 네이션’은 ‘국가 싱가포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론적으로 평등하고, ‘법적, 정치적 공동체’를 이룬다는 점에 근거를 둔 것이며, 그와 동시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내셔널리즘으로 정당화된다(안쏘니 D. 스미스 1997).

독립국가 싱가포르에 필요했던 것은 이전까지처럼 국제 교역도시이자, 중국의 이민 식민지가 아니라 성공적인 다민족 공동체 사회로 변신하는 일이었다. 싱가포르의 독립 선언은 말레이시아가 말레이인을 중시하고 화교 세력을 견제하는 정책을 펴으로써 인종 간의 평등을 주장하며 민주사회주의 정책을 펴나가고 있었던 싱가포르와 대립이 심화된 것을 주된 배경으로 한다. 말레이계를 단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화교를 적대시하는 정책을 내세웠던 말레이시아와 정반대로 다인종·다종족 간의 융화와 결합을 추구

하고 있었던 싱가포르는 더 이상 동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었다. 독립한 싱가포르는 이전보다 훨씬 말레이시아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스스로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다민족국가이자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와의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력 충돌이나 갈등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촉구하면서 리완유가 한 연설을 참고할 만하다. 그는 ‘게다가 우리는 신병들의 사회적, 민족적 배경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줌으로써 국민들을 더욱 통일된 공동사회 안으로 통합시키는 한편, 싱가포르군의 최고 지도부에 탁월한 인재들을 끌어들이야 했다’ 라고 했다(Lee, From Third World to First). 여기서 리 전 수상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는 신병 개개인의 민족적 배경과 출신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들을 모두 평등하게 대우해서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국가 싱가포르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싱가포르의 국가 만들기와 다민족 공동체 구현은 새로운 국가가 가야 할 목표였고, 동시에 독립의 출발점이었다.

신식민주의에 빠질 위험을 피하고,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공유의식이 약한 자국의 국민들을 통일된 전체로 묶어줌으로써 싱가포르라는 신생 국가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일은 국가의 존립과 유지에 필수적인 일이었다. 리완유는 이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는 국가를 정지되어 움직이지 않는, 고정불변의 어떤 것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미래의 싱가포르가 앞으로 변화해나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그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당시에 이미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었던 서로 다른 종족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불평등한 발전의 문제였다. 리완유는 독립을 선언했을 당시 이미 출발점이 달랐던 종족들이 각각 당시의 발전 속도와 같은 비율로 발전함으로써 그들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계속 차이가 나거나 그 차이가 더 벌어진다면 독립국가 싱가포르의 미래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리라고 예상했다(Kwang 외 1998). 이와 관련하여 그가 말레이인들은 왜 ‘부(富)’를 추구하지 않는가라는 문제

를 직시하고, 그에 관해 종족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러한 종류의 문제에 주목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는 중국, 인도, 실론 계통의 종족들이 발전해 나가는 것과 다른 비율로 말레이계가 발전하는 것을 걱정했다 (Kwang 1998). 그러면서도 리완유는 ‘말레이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비합리적인 것은 없으며 이를 비판할 수도 없다’ 면서 말레이계 국민의 관습과 전통적 사고방식을 존중하고 현실적으로 이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썼다. 이러한 포용책은 싱가포르의 국가 형성에 기반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른 여러 종족으로 이뤄진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에서 종족들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의 통합과 성장, 미래 전략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민의 구성원이 각기 다른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 각자의 사회·경제적 위상, 관습과 풍속, 가치관, 전통이 다를 수밖에 없다. 대체적으로 싱가포르 인구의 77%는 중국계, 14%는 말레이계, 8%의 인도계, 1%는 유럽계 기타 다른 종족으로 구성되고, 이 비율은 과거와 현재, 미래 예상치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들을 하나의 ‘국가’라는 관념 아래 하나의 통일된 공동체로 묶어줄 공통분모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각기 다른 출발선에 있던 이들이 각기 다른 비율로 계속 발전을 한다면 그 역시 국가의 미래 발전상, 세계 속의 위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닐까? 독립 이후 몇 년 간 싱가포르의 정치지도자들은 국가의 비전을 생각하며 이와 같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완유가 ‘국가 만들기’에 매진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잘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인민행동당이 싱가포르 사회를 분리시키거나 분열시킬 우려가 있는 역사 연구를 적대시했다는 점일 것이다(Tarulevich 2004). 역사 연구를 적대시하는 것은 1980년대 들어 점차 바뀌었고, 이후 싱가포르 사회에서는 그간의 역사를 끌어안고 포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1969년 싱가포르대학에서는 〈국민통합-싱가포르 케이스〉라는 의식 조사를 했다(谷澤愼一郎 1986). 이는 건국 이래, 국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핵

심 전략으로 중시되었던 “싱가포르인 의식”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조사에서는 싱가포르의 선거권자 가운데 임의로 1,197명을 골라 국가의 식을 측정하는 인터뷰를 했다. 이는 국가를 상징하는 임의의 용어와 개념 가운데 5개 항목을 골라 이를 통해 얼마나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이미지가 떠오르는지를 조사한 것이었다. 당시 조사한 5개 항목은 건국기념일, 국기, 국가, 대통령, 수상으로 이 가운데 국가나 수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각각 81%, 90%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국기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약 1,200여 명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인 62%만이 싱가포르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빈도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언론·방송 등의 대중 매체를 통한 시각적인 ‘각인’과 그로 인한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신생 국가 싱가포르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과 동일한 비중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새로운 국가의 상징과 이념을 공론화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교육시키는 일 또한 중요한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1965년부터 1990년대까지는 싱가포르에서 역사가 중시되지 않았고 문화정책 역시 이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펼쳐졌다. 박물관 정책도 마찬가지였다. 박물관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과거’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조절’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1960년에 싱가포르 역사박물관이 래플즈 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꿨다가 1965년에 국립박물관으로 다시 개명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Tarulevicz 2004). 이 무렵부터 약 25년간 싱가포르 정부는 박물관에 대해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199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사회 교육기관으로서 역사와 박물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싱가포르 전역에서 박물관을 수리하거나 재개관하는 사업을 정책적으로 펴나갔고, 이는 개방적으로 펼쳤던 당시의 예술·문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III. 싱가포르의 국가기념물, 머라이언

1972년 9월 15일 싱가포르 강 입구, 현재의 앤더슨 브릿지(Anderson Bridge) 풀러튼 하우스(Fullerton House) 앞에 높이 8.6M에 달하는 머라이언 조각상이 처음으로 세워졌다(도1). 이 조각상의 제막식에서 당시 수상이었던 리관유는 직접 축사를 했다. 머라이언의 제작은 당시 싱가포르 대학(현재 NUS)의 관 사이 킹(Kwan Sai Kheong)이 1971년 11월부터 1972년 8월까지 전반적인 도안을 만들었고, 장인 림남썩(Lim Nam Seng)이 실제 형상화 작업을 했다. 림남썩은 먼저 도안에 따라 시멘트로 전체적인 골격을 만들고 이를 다듬은 후, 조각 표면에 도기 재질을 덧입혀 현재와 같은 매끈한 모습의 머라이언을 만들었다. 머라이언의 제작에는 당시 싱가포르 화폐로 165,000 불이라는 비용이 들었다. 조각상징물은 표상하고자 하는 대상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자의 머리에 물고기의 하반신을 지닌 상상의 동물 머라이언은 싱가포르의 발견 설화와 그들의 지향점을 교묘히 결합



그림 1 풀러튼 하우스 앞에 세워진 머라이언, 1972



그림 2 150주년 기념 행사

시킨 도안이다. 터마섹에 온 고대 수마트라의 왕자가 멀리서 사자를 봤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 싱가포르(Singa-Pura)이기도 하지만 사자는 오랜 세월 동안 중국에서 사랑받아 온 상서로움의 상징이기도 했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각종 도안물에서 사자의 상징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싱가포르 발견 150주년을 기념하는 퍼레이드(도2)나 싱가포르가 도시가 된 것을 축하하는 City Day 행사에 썼던 사자의 도안과 싱가포르 항공의 설립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사자춤을 추는 사진은 싱가포르 국민에게 사자의 형상이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도3).

머라이언은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싱가포르라는 국가를 표상하는 것이면서 무차별 대중을 하나로 묶어 일체화함으로써 국민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다. 원래 머라이언의 도안은 싱가포르 관광청(STB, Singapore Tourism Board)에서 공모한 로고 디자인에서 시작되었다. 처음 고안한 디자인은 기념품 위원회(Souvenir Committee) 소속 위원이자 밴 클리프(Van Kleeef) 수족관 큐레이터였던 프레이저 브루너(Fraser Brunner)가 만들었다. 싱가포르 관광청에서는 실제로 그의 디자인을 1964년부터 1997년까지 싱가포르 관광을 상징하는 심볼로 사용했고 머라이언 도안과 관련한 법적 권리는 여전히



그림 3 싱가포르 항공 설립 기념행사

싱가포르 관광청에 있다. 무수한 상인들이 머라이언 도안을 각종 기념품이나 의류, 문구 등에 써서 싱가포르의 상징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물론 머라이언이 이렇게 급속도로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영세수공업자와 상인들이 머라이언의 도안을 쉽고 빠르게 상품화하여 판매함으로써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것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상업화 역시 그 배후에는 싱가포르 관광청이라는 국가 기관이 있다. 그들은 머라이언의 도안을 간단한 절차를 거쳐 허가만 받으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이를 쉽게 쓸 수 있는 환경이 이뤄졌다. 이로써 싱가포르에서는 어디서나 머라이언 도안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싱가포르 관광의 상징이 되었다.²⁾

2) 싱가포르를 찾는 관광객은 독립 초기인 1970년 521,654명에서 1983년경에는 2,850,000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늘어난 관광객의 숫자만큼 싱가포르와 머라이언의 연결은 보편화되었을 것이다(Information Division 1984, 364).

관광은 일반적으로 外遊와 동일시되지만 실제로는 외유 이상의 의미가 있다. 자국 국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외국인들에게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나라 자신’을 주입시킨다. 관광을 통해 얻어지는 기억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상상’하게 하는 인식론적 결말을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과 관련된 정책과 이미지들은 실제로는 바깥 세계에 보여주는 한 나라의 정체성을 구체화하려는 의지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머라이언을 복제하고 각종 도안으로 사용하는 일은 내부적으로는 싱가포르 국민들의 유대감을 공고히 하고, 외부적으로는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연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머라이언 파크에 세워진 머라이언의 동제 명판에는 “싱가포르를 찾는 사람들을 환영하기 위해 머라이언을 세운다(The Merlion has been erected as a symbol to welcome all visitors to Singapore)”는 글이 새겨져 있다(도4). 싱가포르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보는 관광 명소이자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머라이언 파크에 어울리는 구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리관유 수상이 제막식에 참석해서 환영 연설을 했던 머라이언 파크에 있



그림 4 머라이언 동제명판

는 조각상이 가장 먼저 제작된 오리지널 머라이언이다(도5). 원래 엘리자베스 거리(Elizabeth Walk), 싱가포르강 입구에 세워졌다가 2002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었다. 이전을 하게 된 이유는 1997년 에스플레네이드(Esplanade) 다리가 완성됨에 따라 원래의 위치에 있었던 머라이언의 시야가 가려지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여론에 의해 2002년에 어느 시점, 어느 각도에서나 잘 보이는 곳으로 머라이언이 옮겨져 결과적으로 12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전되었다. 처음 제막식을 가졌던 1972년 이후 약 30년 만에 당시 은퇴해 있던 전 수상 리관유는 새로 옮긴 장소에서 다시 머라이언에 대한 환영사를 했다. 일개 조각상의 건립과 이전 기념식에서 모두 2차례에 걸쳐 수상이 환영사를 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머라이언을 도시의 상징으로 삼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세우고 관리하는 일은 수상 자신이 내세웠던 ‘싱가포르 만들기’의 일환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머라이언 둘레에는 광장처럼 공간을 두어 관람객들이 머라이언 조각 앞이나 옆에서 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 명실공히 싱가포르의 상징 역할을 하게 했다. 흥미로운 점은 머라이언이 중국의 풍수에서 가장



그림 5 이전된 머라이언

상스러운 방향인 동쪽을 향하게 안치되었다는 점이다. 모든 사물과 공간의 배치에서 풍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중국의 전통적인 관념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표면적으로는 말레이계를 포함하여 출신의 기원이 다른 여러 민족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사안은 중국적인 전통에 기대고 있음을 보여준다.

머라이언의 도안과 관련하여 살펴볼 것은 싱가포르가 독립을 선언하기 이전인 1959년에,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던 엔치크 유소프(Encik Yusof, 1910~1970)가 싱가포르 국가와 국기를 만든 이래, 계속해서 싱가포르의 모든 시민을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기 위해 여러 가지형태의 다양한 국가 상징장물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 당시 싱가포르는 독립국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말레이시아와 연방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체성을 보여주는 국가와 국기가 필요했다. 독립 이후 만든 여러 상징적인 것으로는 국가에 대한 맹세, 나라꽃인 난(orchid), 싱가포르 군대 마크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머라이언과 관계되는 것은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사자 머리 도안이다. 국가의 정체성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여러 도안들이 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사자 머리는 1986년에 도입되었다.³⁾ 이 도안은 싱가포르 정보통신예술부(Ministr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he Arts)에서 공모하여 마이클 리(Michael Lee)가 만든 것이 당선된 것이다.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 등에서 볼 수 있는 사자머리의 도안은 사자가 용기와 우수성,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싱가포르가 지향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사자머리의 도안이 머라이언의 도안보다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머라이언의 영향을 받아 사자 머리가 국가 상징 기념물의 위치에 오르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무렵부터 1990년대까지 싱가포

3) <http://www.nhb.gov.sg>의 국가, 국기, 국가상징 섹션 참조.

르 국내에는 과거에 대한 향수가 점점 줄어가고, 점차 공공의 영역에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Tarulevicz 2004). 보다 일찍 만들어진 과거의 머라이언 디자인을 연상시키는 사자머리 도안은 싱가포르의 과거와 현재, 그들이 지향하는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싱가포르의 머라이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센토사에 있다. 전체 높이가 37m에 달하는 센토사의 머라이언은 제임스 마틴(James Martin)이라는 호주 조각가가 도안하고 조각한 것이다. 강철로 기본 일개를 만들고 그 위에 강화유리 시멘트(Glass Reinforced Cement)를 덧씌워 조각을 한 것으로 외형적으로는 머라이언의 조각상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축구조물이며 기본적으로 전망대 역할을 한다. 입구 중앙부에 정상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를 타고 올라가면 싱가포르 시가지와 항구를 조망할 수 있다. 특히 사자의 머리와 입 부근에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두어 센토사 관광의 핵심 명소가 되었다(도6). 머라이언은 고대에 싱가포르를 발견했다는 전설 속의 주인공, 수마트라의 상 닐라 유타마(Sang Nila Utama) 왕



그림 6 센토사의 머라이언 전망대

자를 도와줬다는 전설의 사자 머리와 당시 싱가포르를 지칭하는 고대 도시 터마섹이 의미하는 바다를 물고기 형상으로 합성한 것이다. 즉, 싱가포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전까지 터마섹으로 불렸던 것을 상기시키는 도안이며, 여기에 사자 머리를 합쳐 새로운 국가 싱가포르의 발견담은 ‘창조’ 내지는 ‘건국’ 설화처럼 만들었다. 센토사의 머라이언 타워에서는 이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일정한 시간마다 관람객들에게 상영한다. 이것을 관람하는 것은 관람객의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망대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 코스이다. 약간의 선민의식을 포함하여 웃타마 왕자가 싱가포르를 ‘발견’ 하고 이상적 국가를 세웠다는 단순한 플롯의 애니메이션을 통해 누구나 싱가포르의 역사가 매우 오래된 것처럼 느끼고, 필연적으로 국가라는 보이지 않는 공동체가 될 운명이었던 것처럼 학습된다. 5분짜리 애니메이션에서 싱가포르를 발견하고 나라를 세우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준 머라이언이 이 나라의 상징으로 ‘각인’ 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애니메이션 상영을 통한 간단한 ‘학습’ 을 통해 국가의 구성원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지니게 만드는 것은 쉽고 효율적인 일이다. 더욱이 국민 구성원 개개인이 자기 조상들의 출신인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보다 싱가포르가 더 잘 사는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 만들기의 효능은 구성원들의 자부심과 밀접하게 결부된다. 현재의 싱가포르인들은 출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인도나 중국에서 자신들의 선조가 왔고, 그곳은 선조들의 고향이며, 이가 친척이 살고 있지만 자신은 여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조의 고향이 자기가 속한 ‘국가 싱가포르’ 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강화시켜준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싱가포르의 국가 만들기는 성공적이었다 하더라도 이에 수반되는 국가 상징, 국기, 國歌 등을 통해 출신이 다른 민족들 간의 결속이 강화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리 전 수상이 말했듯이 이들 시각 이미지와 기념물, 박물관의 전시는 ‘우리가 어

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를 기억' 하게 해주는 중요한 상징 매개물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Tarulevicz 2004).

IV. 싱가포르의 박물관: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하지만 나라의 외형적 규모에 비하여 다양한 박물관을 여러 곳에 건립했고, 초등학생부터 이들 박물관을 견학하고 관람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과거 역사를 배우는 대표적인 학습공간으로 위치 지웠다.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싱가포르 아시아문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 싱가포르에 세워진 다양한 형태의 전시관들은 싱가포르가 지향하는 국가 정체성을 보여주고 교육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들이 지향하는 다민족 융화 정책의 일면을 잘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박물관을 통한 교육은 학교 교육과 같은 구성과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교육이며,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교육이다. 싱가포르 시내 곳곳에 분산된 박물관은 시내 어디서든 가까이 가기 쉬운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인종, 종족, 다양한 지역 출신의 선조를 둔 나라답게 그들 각각의 문화를 같은 비중을 두어 끌고루 아우르는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다민족 국가이기는 하지만 실제 국민들의 구성 비율과 관계없이 차별 없는 전시 공간을 기획하여 자칫하면 가질 수 있는 편견을 미연에 방지하는 식으로 전시를 구성하고, 전시품을 선택하고 있다. 1990년 당시 수상 고축통은 싱가포르 의회에서 '우리 박물관은 국가의 기억을 응집해내야 한다'는 제목의 연설을 했다. 그는 여기서 박물관의 관람객들이 싱가포르의 삶을 산 것처럼, 그 영혼을 느꼈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Goh 1990). 이는 싱가포르의 사회지도층이 박물관을 통해 싱가포르의 정신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일러준다. 이는 박물관이 '사회(공공)의 (집단적)기억'을 양산한다는 해밀턴의 지적과도 일치한다

(Hamilton 1994). 아마도 고 전수상을 비롯하여 싱가포르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사회의 기억과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깊이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통상적으로 박물관이 그 나라의 역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싱가포르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역사’라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각 시대의 대표 유물을 시간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 구성을 단일한 공동체로 환원시키는 작업에 더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과거 역사에서 공유한 경험이나 종교적인 의례와 문화, 고유의 전통과 관습 가운데 어느 하나를 중시한 역사적 사건의 상징물을 우대하는 전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민족 공동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점에 중점을 둔 전시를 기획, 구성한 것이다. 이와 같은 기념물과 전시관을 통하여 싱가포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인지시키는 것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싱가포르란 이러한 나라이다’라는 정책적 지향점을 홍보하고, 국가가 가야할 이상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다. 과거의 유산이 없는 나라에서 선진국과 같은 ‘문화’를 만들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박물관과 전시관에 접근하는지를 알아보는 일은 그들이 추구하는 바,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확인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한 나라에서 박물관의 전시는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기원’과 ‘전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둔다(Hooper-Greenhill 1994). 그러나 푸코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전시의 기본틀은 역사 속의 특수성, 혹은 구성원이나 사건들의 차이점보다는 이들 간의 공통점을 드러내는 데 더 의미를 두었다. 반면 싱가포르의 경우는 이와 달라서 원래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되어온 역사적, 문화적 공동체가 아니었던 상태로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와 건국 이념에 걸맞은 국가 구성원들의 공통점을 강조하기는 어려웠다. 그보다는 오히려 국가 구성원들의 기원과 출신이 다르지만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 그 주인이 될 수 있었는가를 보

여주는 편이 솔직하게 보인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따라서 싱가포르가 독립할 때 내세웠던 것처럼 여러 민족들의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관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포용력 있게 보인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싱가포르 아시아문명박물관의 경우는 교묘하게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제시하고 그들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신들의 전통이 어디서 올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려는 시도를 드러내는 전시 구성을 하고 있다. 인구 구성으로 보면 싱가포르의 박물관은 중국계 인구가 절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문화를 중시하는 전시를 동시에 하고 있으며, 말레이계나 소수 민족의 전통 문화 역시 소홀히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랑스에서 박물관은 구체제(Ancien Regime)에 대한 신흥공화국의 새로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교육하기 위한 기관으로 창안되었다. 공공 박물관은 대중을 국가에 유용한 자원으로 변화시켜줄 기관으로 출현했다(Hooper-Greenhill 1994). 유물의 수집, 전시, 관리는 대중들의 교육을 위해 박물관 관계자들이 보여주고 싶은 방식대로 배치되었고, 유물 간의 보이지 않는 서열과 중요도가 정해졌다. 전시품은 전시자의 주관에 따라 임의로 나열되고, 감정되고, 목록화되고, 문서화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보수되거나 복원되었다. 보여주고자 하는 그대로, 관람자는 보게 된다. '선택된 역사' 처럼 '선택된 시각문화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이미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19, 20세기 동안 서구에서 근대 공간으로서의 박물관이 확고히 자리 잡은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국가였다. 그러므로 박물관의 성립 과정에 대한 논란과 성격을 규정하는 일 대신 국가의 통합,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에 따라 싱가포르의 박물관들은 '선택된 시각문화의 역사'보다 오히려 다민족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박물관, 미술관을 건립하고, 각종 행사를 유치하거나 현대 미술의 메카가 되려는 노력은 또한 싱가포르의 국가 정체성 구축이 과거에 머물러 있

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노력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半官半民 조직인 싱가포르 국가유산위원회(National Heritage Board)와 예술협의회(Art Council) 등은 국가가 원하는 고급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각종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관리·감독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이는 다민족 융화를 목표로 과거 유산을 재구성하고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미래지향적인 국가 정체성 확립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중요 박물관과 전시관을 통해 어떤 식으로 ‘국가 만들기’를 하고 있는가? 싱가포르 국립박물관과 아시아문명박물관, 싱가포르 국립미술관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상위기관은 모두 국가유산위원회(National Heritage Board, 이하 약칭 NHB)이다. 국가유산위원회는 싱가포르에서 國家文物局으로도 불리는 기관으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의 문물⁴⁾을 관장하는 공공기관이며 정보통신예술부 산하 기구이다. 1993년에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국립박물관, 구술사국(口述史局, Oral History Department)을 합병하여 국가유산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기관이며 미술, 음악, 문화, 기록유산 등을 총괄·관리한다. 2004년에는 싱가포르 유산 축제(Singapore Heritage Fest)를 발족시킨 바 있다.⁵⁾ NHB는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듯이 자신들의 목표를 ‘국민성, 국가 정체성과 창의성을 길러내는 것’에 두고 있다.⁶⁾

국가유산위원회 산하의 대표적인 기관인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은 한때 싱가포르 역사박물관(Singapore History Museum)으로 불린 적이 있어서 이 두 가지 명칭이 여전히 통용된다(도7).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이야말로 역사를 국가에 돌려주기 위한 프로젝트의 도구가 되었다고 지적된 바 있다

4)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문화재에 해당하며, 중국을 비롯한 한자문화권에서 문화재나 문화유산에 대응하는 말로 쓰는 용어이다.

5) 산하기관과, 업무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문화관광체육부에 해당하는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다.

6) ‘to foster Nationhood, Identity and Creativity’ <http://www.nhb.gov.sg> 참조.



그림 7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Tarulevicz 2004). 이 박물관은 1887년까지 올라가는 역사를 지녔다고 알려졌으며, 2003년부터 약 3년 반 동안 리모델링을 하고 2006년 12월에 재개관한 역사를 갖고 있다. 싱가포르 박물관의 역사에서 2003년은 남다른 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점에 싱가포르 미술

관(Singapore Art Museum)과 아시아 문명박물관이 성공적으로 재개관했다. 2003년이 국가적으로 싱가포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2000년대 들어 제3세계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반 싱가포르 정부가 강하게 대두되기 시작했던 시기로 국가 내부적으로 결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과 관련이 있으리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리 전수상의 80회 생일을 맞이하여 그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싱가포르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과제의 성과를 더욱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부인하기 어렵다.

문자 그대로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은 싱가포르의 역사를 보여주려 한다. 전시실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주변에서 발견된 선사시대의 유물부터 현재의 실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싱가포르의 유물을 그대로 보여주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출신이 다른 국가 구성원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국가로서의 역사가 짧고, 이미 현대 미디어들이 모두 실용화된 이후에 국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각 전시실에서는 싱가포르의 독립과 국가 수립 관련 사진, 각종 시청각 자료, 동영상들이 함께 전시되거나 상영된다. 싱가포르 독립 이후의 현대사를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나라의 국민들이 현대의 질곡을 함께 헤쳐 나왔다는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목표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박물관의 규모에 비하면 전시된 유물은 동북아시아나 다른 동남

아시아 국가에 비하여 무엇보다 수량 면에서 적은 편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민속박물관이나 고궁박물관에 비견될 만하다. 일본의 예로는 오사카의 민족학박물관과 좋은 비교가 될 것이다. 박물관의 1층 입구와 사무실 명칭이 스탬포드(Stamford)라는 것은 마치 싱가포르의 ‘기원’을 기억하라고 만든 것처럼 보여 흥미롭다.⁷⁾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의 전시는 싱가포르의 역사를 마치 생활인의 관점에서 보여주듯이 구성되었고, 일반인과 외국인 관람객들은 이들 전시를 관람함으로써 하나의 단일한 공동체로서 싱가포르가 역사를 공유해 온 것처럼 느끼게 된다. 자체 유물이 부족한 국립박물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전시 모형인 디오라마이다.⁸⁾ 역사적 사건을 재현한 디오라마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기획 의도대로) 선택되고 편집된 관점’을 보여주고 제한된 시각을 통해 사건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Tarulevicz 2004). 디오라마의 관람객은 실제 역사가 이야기되고 구현되는 서사(narratives)를 통해 의도된 역사를 ‘본다’.⁹⁾

한편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은 자신들의 문화와 유산에 관련된 현대의 창작을 위한 축제나 각종 행사를 개최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보다 역동적인 종합문화공간을 지향한다고 홍보한다. 가령 따로 특별전을 개최하여 교양을 쌓고, 취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적인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이 박물관이 지니는 특징점이 된다. 또 여느 박물관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영화(Film)와 와양(Wayang) 전시실인데, 이 두 전시실은 싱가포르의 역사에서 완성도나 대중적 기여도 등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전

7) 명칭은 각각 Stamford Entrance와 Stamford Office이다.

8) 디오라마는 역사에서 특정한 순간을 재현하며, ‘ 역사를 연속된 이미지로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Hewitt 2009, pp. 29-35. (Nicole Tarulevicz(2004)에서 재인용)

9) 박물관의 기능이 역사를 재현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를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은 자신들의 역사를 재현하는 것을 중시한다.



그림 8 싱가포르 아시아문명박물관

시설을 배정받음으로써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립박물관 내에 자신들 특유의 방식으로 전시를 했다. 이러한 뉴 미디어에 대한 접근은 재개관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박물관 관

계자들은 공공의 자리에서 대중들과 접하기 위해 단편영화, 탕고, 인형 옷 갈아입히기 대회 등을 개최했다고 한다(Teo 2007)

싱가포르의 유물만을 전시하지는 않지만 범아시아 속에서 싱가포르의 역사적·문화적 위치를 상기시키는 전시를 하는 곳이 아시아문명박물관이다(도8). 아시아문명박물관은 아시아 민족들의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아시아의 문화와 문명을 폭넓게 조망하는 박물관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로써 싱가포르의 다민족 사회를 구성하는 풍부한 문화를 더욱 잘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싱가포르 국민의 조상은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이주해 왔기 때문에 아시아문명박물관은 이들 여러 종족의 원래 주거지였던 중국,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등지에서 모여든 각기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물질문화에 초점을 맞춘 전시관이다.¹⁰⁾ 아시아문명박물관에서는 중국,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등지의 문명과 관련된 수집품에서 1,300여 점의 유물을 11개 전시실에서 보여준다. 전시된 유물들은 원래 래플즈(Raffles) 박물관의 동남아시아 민족지(民族誌) 수집품에서 승계된 유물과 그 이후 계속 취득한 유물이 모

10) http://www.acm.org.sg/the_museum/about_acm.asp

두 포함되었다. 이로써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여러 문명의 복합적 구성체가 어떻게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이뤘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이 박물관은 원래 당시 부수상이었던 리셴룽(李顯龍, Lee Hsien Loong)이 1997년 4월 아르메니안 거리(Armenian Street)에서 개관한 전시관에서 시작되었다. 이 전시관은 2005년 말에 문을 닫고 일부는 2008년 4월 빠라나칸 박물관(Peranakan Museum)으로 재개관되었고, 일부는 아시아문명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2003년 3월, 엠프레스 플레이스(Empress Place)에서 다시 문을 열었다. 빠라나칸 박물관으로의 개관을 주관하고 조직한 인물은 애초에 전시관을 열었던 주관자였던 현 수상이자 리관유의 아들인 리셴룽이었다. 특히 이 빠라나칸 박물관은 싱가포르의 현재와 과거 사이의 거리를 강조하고 현재 싱가포르의 발전상을 과시하기 위한 전시로 구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Tarulevicz 2004). 어두웠던 과거와 동남아시아에서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싱가포르의 현재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일은 당대 사회와 문화, 더 나아가 정치 현실까지를 긍정하고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준다. 이처럼 ‘역사적인 문화’를 이용하여 현대 문화를 강조하는 일은 싱가포르의 여느 박물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시아문명박물관은 싱가포르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풍부한 다민족 문화유산이 가장 많이 수집되어 있어 각 지역의 역사·문화의 전시장으로 간주된다. 특히 중국의 종교, 학문, 전통 상징물, 미술품, 전통 복식을 입은 대형 인형 등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중국 관련 유물이 많은 것은 애초에 박물관을 열었을 때, 이미 전시의 2/3 가량이 중국 문명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이후 빠라나칸 은공예품과 도자기, 보석을 비록하여 싱가포르의 부유한 빠라나칸 가정의 기념비적인 저택을 다시 재건축하여 보여주는 등 빠라나칸 문화를 보여주는 쪽으로 점차 전시의 중심을 옮기고 빠라나칸 박물관으로 재개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 관련 유물이 많아 보인다. 그러

나 단지 중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말레이, 그리고 유럽의 영향을 받은 빠라나칸 문화유산 일부, 이슬람 문화도 함께 전시하는 종합적인 문화·문명 전시관으로 기능한다. 이들 대부분은 박물관에서 개별적으로 수집한 것이지만 기증 받은 유물도 적지 않아서 근, 현대 싱가포르 주민의 수집 경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실제로 싱가포르 국민들의 기원(혹은 출신)이 되는 민족과 나라의 문화유산이 전시의 핵심으로, 국민의 다수를 점하는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의 나라를 중심으로 자신들이 수집하거나 기증 받은 유물을 전시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각종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때로는 고유의 음악을 배경으로 해당 문화의 실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게 하는 일종의 이머전(immersion)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시아 각 지역의 문화를 전시한 곳에는 각기 다른 전자 패널을 두어 센서를 통해, 혹은 전자 장치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해당 문화의 기원과 특징, 혹은 일반적으로 오해를 받는 나쁜 관습으로 알려진 문화에 대해 해명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각기 기원이 다른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심화시키고,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통합된 이념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시관은 이른 시기 즉, 고대 동남아시아 문명이 어디에 기원을 두고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려는 듯, 남아시아 전시실을 1층에 배치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층에는 싱가포르에 이주해서 정착한 여러 종족들의 문명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전시실을 구성했다. 무엇보다 싱가포르의 삶의 터전이 되는 싱가포르강을 따라 생활을 영위해온 사람들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싱가포르강 전시관을 제1전시실로 하고,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중국의 유물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시실을 배치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동남아시아 전시실과 서아시아 전시실은 3층으로 이어진다. 3층 전시실에서도 이들 각각의 고유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고급 미술품과 유물 중심의 전시를 하는 공간과 생활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나누었으며, 후자의 경우는 고유 음악을 체험할 수 있는 전자 장치를 만들어 ‘보는 전시’에 그치지 않고, ‘듣고 즐기는 전시’를 기획

했다.

싱가포르의 관광 명소이자 중요한 놀이 공간으로 떠오른 센토사의 임비아 룩아웃(Imbiah Lookout)에 위치한 싱가포르 다문화 전시관 (Images of Singapore)은 멀티미디어 전시와 멀티스크린



그림 9 싱가포르 다문화전시관(Images of Singapore)

극장을 갖추고, 등신대 크기의 인형으로 싱가포르의 주요 역사를 재현해 보여주는 전시로 유명하다(도9). 전시는 주로 이른 시기부터 현재까지 연대기적(chronological) 순서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벌어졌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실제처럼 꾸며서 보여주는 형태로 이뤄진다. 여기에는 영국 점령 이전의 말레이시아 지배기, 영국 점령기, 일본 점령기, 리완유 수상이 주도한 탈식민지기에 이르는 싱가포르 역사의 전 시기를 망라한 폭넓은 전시가 포함된다. 1983년 처음 다문화 전시관이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싱가포르 개척자와 항복의 방 박물관(Pioneers of Singapore and Surrender Chambers Museum)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지만, 1994년에 ‘싱가포르 축제(Festivals of Singapore)’라는 섹션을 포함시키면서 현재의 명칭이 붙여졌다. 2003년에는 리모델링을 위해 일시적으로 폐쇄했다가 2005년에 ‘싱가포르의 네 가지 바람(Four Winds of Singapore)’을 보여주는 멀티스크린을 갖춘 시설로 재개관했다. 여기서 네 가지 바람은 싱가포르 인구 구성에 핵심적인 중국, 유라시아, 말레이, 인도에 기원을 둔 사람들이 싱가포르 사회와 역사에서 공헌한 부분에 대한 찬사의 의미를 지닌다. 2005년의 리노베이션으로 2006년에 세계문화유산센터에서 수여하는 “세계문화유산센터 베스트 리인벤션(Best Reinvention of a Cultural Heritage Center)” 상인 테아상(Thea Award)을 받았다.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 즉 싱가포르 다문화 전시관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국가의 영혼으로의 여행(journey to the very soul of the nation)’을 표방한다.¹¹⁾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민담, 전설, 사실들을 재구성하여 마치 자신들이 그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이 전시관의 기획의도이다. 이곳의 밀랍인형 전시관은 특별히 유명한데, 등신대 크기의 마네킹들을 통해 이곳 전시의 현실감(reality)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21세기 전시관에 실물 크기의 인형을 사건의 배경과 함께 장치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해 각종 체험물을 더욱 현실적으로 보이게 만든 것은 현대 기술을 적용한 이 전시관이 지닌 중요한 장점이다. 관람객이 보지 못한 과거의 사건이나 세간에 전해오는 일화, 민담을 시각적인 장치나 멀티미디어를 통해 현실화시킴으로써 관람객은 마치 직접 사건을 겪은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되고, 역사적 상상의 세계를 관람객 자신에게 구체화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을 ‘국가’의 일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독립 이전의 역사가 특히 빈약한 싱가포르에서 영국 식민지였을 때의 중국 상인들 모습이나, 인도인 노예들이 고무농장에서 작업하는 것, 말레이 어촌을 재현한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부득이한,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과거의 재현’으로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독립 이후,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마도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지도 않았고, 공동체 사회를 형성하여 고유 문화로 불릴 만한 어떤 공통의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싱가포르 다문화 전시관은 과거 역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를 통해 이와 같은 경험을 싱가포르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고안물이다. 원래는 싱가포르의 풍부한 문화유산

11) <http://www.sentosa.com.sg/en/attractions/imbiah-lookout/images-of-singapore>

과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관으로 기획되었지만 민족과 종교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의 싱가포르가 마치 14세기부터 형성된 문화임을 보여주기 위해 14세기의 말레이반도를 재현한다. 14세기의 말레이 반도 일부를 계승한 것이 현재의 싱가포르인 것처럼 꾸민 허구의 이미지 전시관인 셈이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편견 없는 사고를 습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 견학이 초등학교, 중학교의 일상 교육활동에서 빠지지 않는 필수 코스가 된 것은 ‘국민’의 일원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다문화 전시관이 새로 만들어낸 복합 문화공간인 센토사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센토사 종합리조트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오락의 공간과 비치리조트,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각종 테마파크와 오락시설, 호텔 등의 편의시설이 건립되고 있다. 그 가운데 전망대 역할을 하는 대형의 머라이언이 건립되었고,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바로 이 다문화 전시관이 있다. 센토사 종합유휴단지의 개발은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의 산하기관에 해당하는 센토사 개발조합(Sentosa Development Corporation)에서 관할하고 있다. 1972년에 설립된 센토사 개발조합은 통상산업부에서 자치권을 인정받은 일종의 정부 산하기관이며 지역 산업 개발의 일환으로 센토사 지방정부와의 밀접한 연계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¹²⁾ 센토사 리조트 개발은 ‘누구나 일하고, 즐기고, 살고 싶은 국제적 목적지가 되고자 하는 싱가포르의 목표에 부응하는 핵심적인 부분을 전담’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¹³⁾ 그러므로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의 위치는 레크리에이션을 추구하는 복합적인 공간이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양면적인 도시 공간으로 기획되었다고 볼 수 있다(Savage

12) Sentosa Development Corporation, Annual Report(2007)에 자세히 나온다.

13) ‘essential part of Singapore’s goal to be a global destination to work, live and play.’
<http://www.sentosa.com.sg> 참조.

2004, 212-25). 이러한 공간에서도 다문화 전시관과 머라이언을 통해 다민족 융화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로서의 국가관을 정립시키고, 이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정당화의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것은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니다.

V. 결론

본고는 싱가포르가 머라이언과 박물관, 전시관을 통해 어떻게 자신들의 국가정체성을 규정하고 강화하고 있는지를 연구한 것이다. 독립국가인 싱가포르에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에 필수적인 일이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싱가포르가 위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국가의 구성원들이 어떤 역사적 경험이나 유대감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동체 사회를 형성한 시간이 짧았던 신생 싱가포르의 국민들 간에는 고유 문화라고 할 만한 유대가 없었다. 그러므로 머라이언을 비롯하여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시각문화, 각종 기념물과 다양한 성격의 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이들 시각 이미지를 통해 국가로서의 싱가포르의 일체감을 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새로 수립된 국가는 싱가포르 국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머라이언과 다양한 여러 박물관 및 전시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아시아문명박물관을 현 수상인 리셴룽이 주도하여 개관했다는 점이나 그의 아버지이자 전 수상인 리완유가 머라이언 제막에 참여하여 축하연설을 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도시의 공간을 구성하고 계획하는 일은 정부의 지원과 용인 없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전시관과 전시된 사물은 관계당국의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가에서 주도하는 대대적인 관광 진흥사업 중 하나인 센토사의 종합 유흥, 관광단지에 대형 전망대인 머라이언을 건립한 일이나 전망이 좋고,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위치에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 전시관을 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모두 싱가포르의 국가 정체성을 환기시키고, 다민족 통합국가로서의 지향점을 잘 보여주는 계획적인 시책의 일환으로 고안되었다.

싱가포르의 국가 만들기는 '다민족으로 이뤄진 평등 사회의 구현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중국계 인구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관련 유물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상의 전시에서는 말레이계나 인도계 국민에 대해 거의 동등한 비중을 둔다. 전시관의 홈페이지와 홍보물, 팸플릿 등은 이들이 싱가포르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관이라고 홍보한다. 각종 박물관과 전시관에서는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싱가포르가 지나온 과거 역사를 다양한 유물과 조형물, 디오라마, 각종 전자 장치, 멀티미디어를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로써 이들 유형의 물건들이 현실화시켜주는 역사적 사건과 공동체적 경험담을 마치 싱가포르 국민들이 집합체로서 오랜 세월 동안 공유해 온 것처럼 만든다. 싱가포르 박물관들은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기반이 근대 이전부터 형성되어온 역사를 지닌 문화에 있고, 이를 계승한 것이 현재의 싱가포르인 것처럼 꾸민 이미지 전시관이며 이러한 전시를 관람함으로써 싱가포르 국민은 '국민'의 일원이자 싱가포르라는 사회구성체의 일원으로서 자기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게 된다. 싱가포르의 박물관과 주요 전시관의 각종 장치들은 이러한 의도를 현재화시키기 위한 고안물이다.

참고문헌 및 관련 웹 사이트 URL

谷澤慎一郎. 1986. 원철희 옮김. 『싱가포르의 성공』. 정음사.

송규진. 2005. “근대 한·중·일 ‘네이션’ 개념의 수용과 변용.” 『동아시아 근대 ‘네이션’ 개념의 수용과 변용』. 고구려연구재단.

스미스, 안쏘니 D. 1997. 이재석 옮김. 『세계화시대의 민족과 민족주의』. 남지.

이상수. 2006. 『이광요의 국가경영리더십』. 한국학술정보. 2006. PDF

조지프 E. 스티글리츠 앤드루 찰턴. 2007. 송철복 옮김. 『모두에게 공정한 무역』. 지식의 숲.

Berger, John. *Ways of Seeing*, London: Penguin Books, 1987.

Bishop, Ryan, John Phillips, and Wei-Wei Yeo ed. 2004. *Beyond Description: Singapore Space Historicity*. London and New York: Taylor&Francis.

Drysdale, John. 1984. *Singapore, Struggle for Success*. Singapore: Times Books International.

George, T. J. S. 1973. *Lee Kuan Yew's Singapore*. London: Andre Deutsch.

Goh, C. T. 1990. “Our Museums must Capture the Memories of Our Nation,” *Speeches '90: A Bimonthly Selection of Ministerial Speeches*, 14.

Hamilton, P. 1994. “The Knife Edge Age: Debates about Memory and History.” Kate Darian-Smith and Paula Hamilton eds. *Memory and History in Twentieth Century Australia*. Melbourne: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Haque, M. Shamsul. 2004. “Governance and Bureaucracy in Singapore: Contemporary Reforms and Implication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5, No. 2, pp. 227-240.

Hewitt, T. 2004. “Diorama Presentation,” *Journal of the Australian War Memorial*, 5, Nicole Tarulevich, pp. 29-35.

Hooper-Greenhill, Eilean. 1992. “What is a Museum?” *Museums and the Shaping of Knowled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_____, 1992. “The Disciplinary Museum,” *Museums and the Shaping of*



- Knowled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Information Division, 1984. *Singapore, An Illustrated History, 1941-1984*, Singapore: Information Division and Ministry of Culture.
- Josey, Alex, 1979. *Singapore, Its Past, Present, and Future*, Singapore: Eastern Universities Press.
- _____. 1980. *Lee Kuan Yew: The Struggle for Singapore*, 3rd ed, London: Angus and Robertson.
- Han, Fook Kwang, Warren Fernandez, and Sumiko Tan, 1998. *Lee Kuan Yew, The Man and His Ideas*, Singapore: Times Editions.
- Khoo, Helen, 2000. "A New Home for the Merlion," Skyline 3rd Qtr, pp. 6-9.
- Kong, Lily, 1993. "Negotiating Conceptions of 'Sacred Space': A Case Study of Religious Buildings in Singapore,"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New Series, Vol. 18, No. 3, pp. 342-358, Oxford: Blackwell Publishing on behalf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 Lee, Kuan Yew, 1998. *The Singapore Story: Memoirs of Lee Kuan Yew*, Singapore: Prentice Hall.
- _____. 2000. *From Third World to First: the Singapore story, 1965-2000*,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 Régnier, Philippe, 1991. *Singapore, City-State in South-East Asia*, Christopher Hurst tran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Savage, Victor R., Shirlena Huang, and T. C. Chang, 2004. "The Singapore River Thematic Zone: Sustainable Tourism in an Urban Context,"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170, No. 3, pp. 212-225, London: Royal Geographical Society
- Tarulevicz, Nicole, 2004. "Between Forgetting and Remembering: Singaporean History and the Singapore History Museum," Fiona Kerlogue eds. *Performing Objects: Museums, Material Culture and Performance in Southeast Asia*, London: The Horniman museum and Gardens.

Teo, Melisa, 2007. *National Museum of Singapore Guide*, Singapore: Editions Didier Millet Pte Ltd.

Times Books International, 1980. *The Best of Times: Singapore in Newspictures, 1940-1980*. Singapore: Times Books International.

Turnbull, C. M, 1992. "Regionalism and Nationalism," Nicholas Tarling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Southeast Asia-from World War II to the Present*, Vol. 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1989. *A History of Singapore, 1819-1988*. Singapore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http://www.sentosa.com.sg/en/attractions/imbiah-lookout/images-of-singapore>

<http://app-stg.stb.gov.sg/asp/form/form01.asp>

http://infopedia.nl.sg/articles/SIP_938_2004-12-27.html

<http://www.biotechnics.org/1nomerlion.html/>

<http://www.yoursingapore.com/content/traveller/en/browse/see-and-do/family-fun/attraction/merlion-park.html>

<http://www.nationalmuseum.sg/>

http://www.acm.org.sg/the_museum/about_acm.asp

ABSTRACT**The Merlion and Museums: Nation Building in Singapore**

Kang, Heejung

Nation building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for New nation, Singapore since the nation declared its independence. The people in Singapore had not enough time to make their own national identity, which was multi-racial, multi-lingual, multi-cultural. It was definitely necessary and impending job for the governors to invent their own nation. The former Prime Minister Lee Kuan Yew gave a public speech twice in 1972 and 2002 at the ceremony to celebrate the completion and re-location of the first Merlion statue near The Fullerton House. And his son, Prime Minister Lee Hsien Loong took the lead in establishing the Asian Civilization Museum. Another former Prime Minister Goh Chok Tong talked to the congress that their museums had to cohere the memory of the nation. All the bureaucrats of Singapore knew how to use various relics, visual artifacts and symbols for the nation. Through the all kinds of exhibitions, dioramas, motion pictures about their history and culture, and electronic devices they successfully built their national identity. Even if their ancestors originated from all over Asia, now they get to perceive one nation as Singaporean.

